



찬양(연주)대 지침서

Rev. 0 (2015. 4. 20)

충현교회 찬양위원회

목 차

1. 찬양에 대하여
2. 찬양(연주)대원의 자격
3. 찬양(연주)대원의 기본자세
4. 예배를 위한 지침
5. 찬양(연주)대원의 기본예절

1. 찬양에 대하여

1) 찬양의 정의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예배에 있어서 찬양은 우리의 신앙심을 총 집결시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2) 찬양의 대상

-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 한다.
-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 한다.
- 인간의 생존과 행복에 필요한 요소인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을 사람에게 주심을 감사하여 찬양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실망 시키신 적이 없으시다.
-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며 극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찬양한다.

3) 찬양의 선행조건

지극히 높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간이므로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듣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 찬양이어야 한다. 특히 찬양하는 사람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함은 모든 대원이 예배위원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성도들에게도 예배의 본이 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예배시 찬양은 설교 말씀 전에 행해지므로 이때 받은 은혜가 곧 이어 설교 말씀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4) 찬양의 역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려고 모인 모든 성도가 바라보는 단상에 위치해 있기에 보고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한다. 찬양은 노래로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이다. 예배에 있어서 찬양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성도가 모였을 때에는 찬양으로 마음을 열어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찬양(연주)대원의 자격

1) 신앙적 자격

-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총현교회의 등록된 세례교인으로써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 중 찬양대원영성부 또는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
-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양과 능력을 갖추려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영적인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는 자

-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헌신하고 연습에 정성을 바칠 수 있는 자

2) 행정적 자격

- 찬양(연주)대원의 임기는 1년이며, 찬양(연주)대장의 청원에 의하여 찬양위원회가 심의하여 당회의 인준을 받아 매년 초 찬양(연주)대 정식대원으로 임명 받는다.
- 연중 각 찬양(연주)대에 입대하는 경우는 각 찬양(연주)대 회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등단하되 각 찬양(연주)대장의 추천을 받아 찬양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찬양(연주)대원은 반드시 찬양대원양성부를 수료하여야 하며, 수료 후 5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찬양대원양성부 과정을 재수강하도록 한다.

3. 찬양(연주)대원의 기본자세

1)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사 귀한 찬양(연주)대원의 직분에 나를 세워 주셨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내가 찬양하는 목적은 나의 구주 되시는 주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이다.

2) 찬양(연주)대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주님과 함께 생활

함으로써 매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유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말씀 읽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나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

3) 찬양이 영적으로 또한 음악적으로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 위하여 영적으로 또 음악적으로 성장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 영적 훈련과 음악적 훈련에 열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찬양을 할 때에는 영적인 찬양이 되기 위하여 느끼며 노래하고 생각하면서 노래해야 한다. 느낌과 생각 없이 부르는 노래는 팽과리와 같다.

4) 찬양(연주)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예배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다. 즉, 찬양연습을 우리 생활의 어떠한 것보다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아무리 음악적 실력이 뛰어나고 그날의 찬양곡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연습에 충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등단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연습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연습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등단을 자제해야 한다.

5) 찬양(연주)대원은 일주일간 그 삶속에서 드러질 찬양을 마음으로 준비하며 주중연습에 참여하여 드러질 찬양을 공교한 찬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찬양 당일 예배전 연습을 통하여 심령을 고취시키고 등단하여 일주일간 준비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삶의 정점으로 삼는다.

4. 예배를 위한 지침

1) 경건회

예배전 연습의 첫 시간이므로 늦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운과 악보를 준비하여 연습실에 착석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지은 죄를 회개하며 정성껏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다.

2) 예배전 연습

나중에 올 대원들을 위하여 안쪽 자리부터 차례로 정돈하여 앉는다. 예배 전에 시험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말과 몸가짐에 피차 주의하며 정성을 다해 연습하며 대원 간 대화는 가급적 삼가며 인사는 가벼운 목례로 한다. 지각을 하게 되면 연습에 많은 방해가 된다는 것을 명심한다. 가운을 착용한 이후에는 언행을 조심하고 가운을 착용한 채로 연습실과 성전 외에 다른 곳(특히, 화장실)에 다니지 않는다.

3) 등단

등단할 때는 잡담을 삼가고 정숙하고 경건한 자세로 입장 한다. 파트장의 지시에 따라 앞줄부터 순서대로 입장하여 정해진 자리에 위치에서 행과 열을 잘 맞춘 후에 착석한다. 등단 시에는 예배와 무관한 소지품은 지참하지 않도록 하며 가방, 핸드백 등을 어깨에 메고 입장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예배 준비

- 등단 후 옷, 가방 등 부피가 큰 소지품은 바닥에 가지런히 내려놓고 휴대폰은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 자리 착석 및 기도 후 주보를 보고 성경구절과 찬송가를 미리 준비하며 조용히 마음을 정돈한다. 등단해서는 주간총현 등 유인물을 펼쳐 읽거나 휴대폰을 조작하지 아니한다.
-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다리를 꼬고 앉지 않는다.
- 예배 중(특히 기도시간)에 화장을 고치거나 머리를 만지는 등 경건한 예배 자세에 어긋나는 행동은 절대적으로 삼가야 한다.
- 찬송가는 큰 것으로 지참하고 찬송할 때는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찬양한다.
- 헌금은 꼭 미리 준비하도록 하여 헌금 시간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성찬식이 진행되는 경우 떡과 잔을 받기 전후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5) 입례송

지휘자의 신호에 따라 한 동작으로 일어서며 가운을 단정히 하고 차례 자세로 지휘자에게 집중한다.

6) 기도 때의 자세

악보를 뒤적거리거나 다른 행동을 삼하며 과도하게 몸을 숙이지 말고 적당히 고개를 숙인 자세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날 무렵 마음의 준비를 하여 지휘자의 신호에 따라 기도송을 부른다.

7) 찬양

봉헌기도를 마친 후 지휘자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한 동작으로 일어서서 차려 자세로 지휘자에게 집중한다. 전주가 있는 찬양의 경우는 전주부터 찬양이 시작된 것이므로 잘 듣고 미리 호흡을 조절하여 찬양을 할 수 있게 준비한다. 찬양이 끝나고 후주가 계속 될 경우에는 움직이지 말고 서 있다가 지휘자의 신호에 따라 착석 한다.

8) 설교 경청

설교가 시작되면 단상을 향하여 자세를 조정한다. 회중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줄거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조심하도록 한다. 다리를 포개거나 신발을 벗는 행위는 금한다.

9) 폐회송과 퇴장

축도를 마칠 즈음 준비하고 있다가 폐회송을 한다. 퇴장송을 마친 후 가운을 착용한 채로 차례대로 퇴장하고 가운을 가운실에 벗어 놓기 전까지 복장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한다.

5. 찬양(연주)대원의 기본 예절

1) 찬양(연주)대원은 예배위원의 한 사람임을 명심하고, 교회에서 정한 예배규례와 찬양위원회에서 정한 규범을 잘 이행하여 경건하고 신령한 예배가 되도록 유념한다.

2) 대원끼리는 항상 미소로 먼저 인사하도록 하며 대원들 상호간에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언행에 주의하여 피차 무심코 한 말로 다른 대원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절제하는 성도의 자세를 갖는다.

3) 대원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야 하며 무슨 일이 있거든 사랑과 용서로 서로의 허물을 덮고 피차 기도한다.

4) 가운을 착용한 후에는 언행을 항상 조심하며 가운 착용시 화장품이나 지저분한 것들이 묻지 않도록 조심함으로써 다른 대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5) 복장은 정장차림을 원칙으로 하며 점퍼, 청바지, 운동화, 슬리퍼 착용 등은 삼가고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번쩍이는 악세사리는 착용하지 않는다. 또한 동절기에 깃이 높이 올라와 가운 바깥으로 돌출되는 옷은 삼가며 긴 머리가 가운 앞쪽으로 나오지 않도록 머리끈으로 묶는다.

6) 본당에 입장하여 자리 정렬 시 인도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오르간 석과 피아노 석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7) 악보는 현금으로 제작되는 교회의 재산임을 인식하고 조심스럽게 다루고 분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혹시 빌려서 사용한 악보는 꼭 반납 한다.

8) 불가피하게 결석을 하는 경우는 미리 그 사유를 파트부장에게 반드시 알린다.

9) 연습 시간에는 편한 자세로 하되, 흐트러지지 말고 허리를 세우며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정신을 집중하여 연습하도록 한다. 개인보다는 전체를 생각하여, 잡담을 자제하고 다른 대원 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

10) 연습 시간에 필기도구를 준비하여 악보에 지휘자의 지적사항이나 강조사항을 표시함으로써 동일한 실수가 재발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한다.

11) 자신이 사용한 종이컵, 잔여 음식물 및 쓰레기 등은 스스로 처리하고 항상 자기 주위를 정리하여 깨끗하게 한다.

12) 찬양(연주)대의 임.역원들은 찬양대원을 섬기는 자세로 임하고 찬양대원들은 임.역원의 말에 순종하는 자세로 임한다.